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국내편-

〈5〉대전 예술의전당



지난 2003년 개관한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트홀과 다양한 부대시설, 특색있는 기획공연으로 대전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거대한 지붕의 유연한 추녀 곡선이 인상적인 대전 예술의전당 전경. /대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영근 대전시 공연전임연구원

광주 시립예술단 법인화

지자체 지원 없인 부작용 초래

중장기 로드맵 세워야

“1980년대의 공연장이 시민회관이었다면 90년대는 문예회관, 2000년대는 예술의전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공연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 공연장은 문예회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당’의 위상에 걸맞게 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인력 영입,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 문화예술과 공연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영근(61)씨

는 꽤 유명한

‘전국구 인사’

다. 광주는 물론

부산, 대구,

전주, 창원 등

각 지자체에

서 그를 찾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

다. 중앙대 예

술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한 그는

지난 97년 대

전시에 특채

로 임용된 이

후 시립예술

단 운영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의 굵직한

현안들을 ‘문화적’으로 처리해 주목을 받았다. 특

히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대전시립예술단을

시 산하 사업소의 전속단체가 아닌 시청 직영형태

로 운영하는 ‘해인’을 제시해 다른 지자체들의 귀

감을 사고 있다. 시장이 시립예술단장을 맡고 예

산과 인사 등도 시청에서 직접 챙기다 보니 효율

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예산배정

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사업소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어 사무국운영, 홍보, 마케팅 등을 안정

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연구원은 최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

예술단 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립예술단의 법인화는 예술단의 전용공연장

과 예산증액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오히려 부작

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술단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법인화) 필요하지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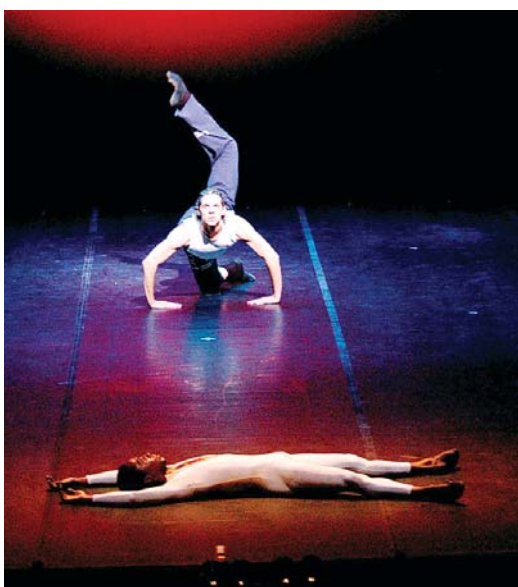
에 앞서 단체별 전용홀과 사무국의 전문인력 등이

확보돼야 합니다.”

/대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세계 우수 공연 유치...중부 공연예술의 중심



오는 10월 1일 대전 예술의전당의 ‘그랜드 페스티벌’에 초청된 모리스 발레단의 공연모습. 〈대전 예술의전당 제공〉

뉴욕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 영국로얄발레단, BBC 필하모니, 상트 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래식에 문외한이라도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들 세계적인 예술단체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관장 임혜경·전당)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다. 웬만한 아트센터의 러브콜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귀하신 몸’들이 대전공연을 위해

4개홀 3065석 규모...4개 상주예술단 市가 직접 운영

년 공연 299건...시즌별 페스티벌·교육프로그램 다채

대규모 단원들을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특히 지난 2005년 2월 모던발레의 지존(至尊)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의 ‘한발행’은 공연계의 일대사건이었다. 프랑스 안무가 모리스 베자르를 무용사에 남게 한 ‘발레로’가 한국 최초로 단독공연인 이날 전당 로비는 한국의 무용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접속했다. 이 기념비적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는 물론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원정 관람객들도 있었다. 전당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일화다.

지난 2003년 개관한 대전 예술의전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중부권의 ‘남바 원’ 공연장이다. 둔산대공원 내에 자리 잡은 전당(연면적 4만774㎡)은 거대한 지붕의 유연한 추녀 곡선이 인상적인 웅장한 건물로, 아트홀(1546석), 앙상블홀(651석), 야외원형극장(850석), 컨벤션홀, 9개의 대연습실과 분장실, 어린이 놀이방,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극장인 아트홀은 120명의 단원을 수용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피트와 안락한 좌석간 거리(1m), 최대 5.7°까지 기울어지는 경사무대 시스템이 특징이다. 전당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대전시립교향

악단·시립합창단·시립무용단·시립청소년합창단 등 4곳. 광주시 산하 사업소(광주문화재단)의 전속단체로 운영되는 광주시립예술단과 달리 대전시립예술단은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市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다. 이 때문에 대전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예술의전당의 기획공연이 아닌 대관공연으로 분류된다. 지난 한해 동안 전당에서 펼쳐진 공연은 총 299건으로 기획공연은 116건(226회), 대관공연은 183건(223회)이었다. 대관공연 가운데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30건(34회)을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기획공연의 횟수가 상당히 많다. 이는 대전시의 과감한 지원과 전당의 뛰어난 기획력 덕분이다. 기획공연의 가장 큰 혜택은 수십만원대의 퀄리티 높은 공연을 5만~7만원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전시는 시립예술단과 별개로 전당 기획공연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했다. 전당은 외부에서 17명의 전문가를 영입한 공연기획팀의 기획력과 마케팅을 가동시켜 매년 국내외 명품공연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공연물을 ‘유평’시키는 1차적인 역할에서 자체브랜드를 내건 창작

물을 제작했는데, 셰익스피어 원전 연극시리즈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예다.

무엇보다 전당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시즌별 페스티벌과 교육프로그램이다. 매년 4월 지역예술단체들의 발표무대인 스프링 축제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여름무로 야외공연(7·8월), 수준높은 클래식공연들을 한자리에 모은 ‘그랜드 페스티벌’(9·10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위한 ‘윈터 페스티벌’(12월)등 ‘4계4색’(四季四色)의 축제는 전당의 하이라이트다. 또한 충청권의 우수한 작곡가를 초청해 그들의 작품을 스토리텔링한 ‘이야기가 있는 창작음악’, 고전음악의 길라잡이 ‘금난새와 함께 하는 가족음악회’, 청소년들의 음악이해를 돕는 ‘오페라 이야기’, ‘스쿨 뮤직 콘서트 & 하우스’, 주부들의 오전 11시를 겨냥한 ‘아침을 여는 클래식’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함께 공연장의 주요미션 가운데 하나인 미래 음악가 양성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음악영재아카데미’, ‘공연예술연수생 프로그램’, ‘해외콩쿨 입상자 시리즈’, ‘유스 오케스트라’(DJAC·Daejeon Culture & Arts Center Youth Orchestra)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대전 예술의전당 송현역 홍보마케팅부 차장은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 클래식, 무용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면서 “인근 시립미술관과 야외공연장, 그리고 오는 2014년 완공되는 국악전용홀과 연계해 대전시가 한국의 공연예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구심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진현문화선임기자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백두산악 최고의 상품 전국 최저가!

오토캠핑장비
텐트·바캉스용품
의류 및 용품

SALE 70%~10%

구매 고객님께 **사은품**을 증정해드립니다

백두산악 광주아울렛점 T.267-2562

백두산악, Coleman, Mountain Equipment, LEKI, Osprey, Tatonka, mello's, Lowe alpine, Sprayway, ARCTERYX, Rab, CARO, Mystery Wall, adidas, patagonia, DANA, CAMPLINE, VAGUE, ASOLO, COGO, Lowsa, Timberline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www.oknwood.com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말)
· 친환경 흙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재 내장 마감재, 목모보드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연대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염, 필름합판, 문짝, 문틀

판매품목
· 장능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족욕기 · 독서대 · 책상Set(의자·책걸이)
· 침대 · 샵통 · 편백건강베개(편백매시 + 결명자매시) · 편백나무베개 · 편백가습기 수액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

· 협력사 | 우단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하마루 | 동하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